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확대

정헌율 익산 시장, 식품클러스터 산단·민간특례공원조성사업까지 조사 확대 지시
특별조사단 3개 반으로 확대·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적발시 강력 처벌

익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 범위를 10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공무원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부동산 특별조사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송4지구, 소라산공원지구, 평화지구 등 기존 조사 중인 3개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함열농공단지, 수도산, 마동, 팔봉, 모인 등 민간특례 공원조성사업 4곳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아파트 불법거래 대상 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특별조사 대상 지역이 10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한다.

공무원 관련 부동산 불법투기는 감사위원회 조사감찰계가 담당하고, 아파트 불법거래는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가 진행한다. 투기여부 파악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과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859-5019)를 운영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익산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송4지구, 소라산공원지구, 평화지구에 대한 1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업 범위를 확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사업 별로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동북아시아 창세신화 콜로키움 진행

광주교대 최원오 교수 초청, '창세신화의 개념, 범주와 그 특징' 주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트랜스바이칼지역 원형스토리 연구팀은 연구주제 심화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동북아시아 창세신화 콜로키움을 진행한다.

지난달 서울대 조현설 교수를 초청해 '유라시아 창세신화와 한국'을 주제로 첫 번째 콜로키움을 개최한데 이어 14일 열리는 두 번째 콜로키움은 광주교대 최원오 교수를 초청해 '창세신화의 개념, 범주와 그 특징'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비교신화학자인 최원오 교수는 국내 창세신화 권위자로 서울대에서 '동아시아 영웅서사시 비교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광주교대 국어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다.

'바리데기 당금애기',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신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국 신화', '동아시아 비교 서사시학' 등 신화와 관련하여 여러 저서를 출간한 최원오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모아 창세신화 개념을 대별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원광대 트랜스바이칼지역 원형스토리연구팀은 2019년 '트랜스바이칼 지역 원형스토리 연구: 경계설정과 재경계화'를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원형스토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창세신화는 민족의 주체성 및 자긍심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며, 창세신화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민족의 정체성, 한민족 문화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 창세신화 2차 콜로키움은 14일 오후 7시부터 9까지 줌(ID : 883 355 4234, PASSWORD : 453652)으로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안전속도 5030 안전 정책 정착 홍보

'군산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실시전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 되는 도심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행에 따라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시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 및 교체를 완료했으며,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판(VMS) 21개, 현수막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고병만기자

익산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훈련의 준비와 실시, 사후평가까지 훈련의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익산소방서는 지난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통해 269건의 소방훈련을 지원했고, 올해도 시내 1,195개 의무 소방훈련 대상에게 훈련지원에 관한 안 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훈련 의무대상은 11인 이상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3급 이상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연 1회 소방훈련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요청은 익산소방서나 각 지역 119안전센터로 하면 된다. 익산소방서는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훈련지원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시작

노인시설 입소자·75세 이상 어르신 2만722명 백신 접종
읍면동 수송버스 지원,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

익산시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수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사전준비를 통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익산 실내체육관에 조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입소자 포함 75세 이상 어르신 등 사전에 동의를 마친 어르신 2만722명이다.

접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된다.

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읍면동에 45인승 수송버스 5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버스는 예방접종센터와 읍면동 자체 집결지를 오가게 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1대 당 1일 3회 왕복 운영한다.

백신접종에 동의한 어르신들은 추후 접종일시 예약 시 수송버스 탑승 여부를 결정하고 시간과 장소 등을 공지 받게 된다.

접종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도 마련된다. 수송버스 안 거리두기를 위해 45인승 버스 1대 당 20명 내에서 탑승을 허용하고 발열체크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어 읍면동 수송차량 인솔자를 선정해 접종자의 예진표 작성부터 이상반응 관찰까지 예방접종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센터 내에서도 방역담당 행정요원을 배치해 혼잡도에 따른 접종 속도 조절과 함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지역은 1분기 접종 대상자 8,202명 가운데 7,851명이 접종을 마쳐 96%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외국 유학생 위한 '외국인 도움센터' 개소

군산대학교는 최근 교내 황룡문화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상담 창구인 '외국인 도움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장, 행정실장, 군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외사계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상담 창구이고, 전국에 총 304개소가 설치돼 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경찰청 다문화 치안협력단체인 외국인 도움센터로 위촉해 ▲외국인 범죄 및 민원 발생 대응 ▲'도움센터-외사경찰' 간 HOT-LINE 구축 ▲외사경찰과의 신고·상담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 통보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앞으로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의회, 지역현안 논의 긴급회의 소집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지난 12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의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유재구 의장, 박철원 부의장,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최근 단기간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지원?협조함에 뜻을 모았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청사 건립 사업비 투자가 명확하고 구체화 된 후 임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함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의장단 회의는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지역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익산시의회는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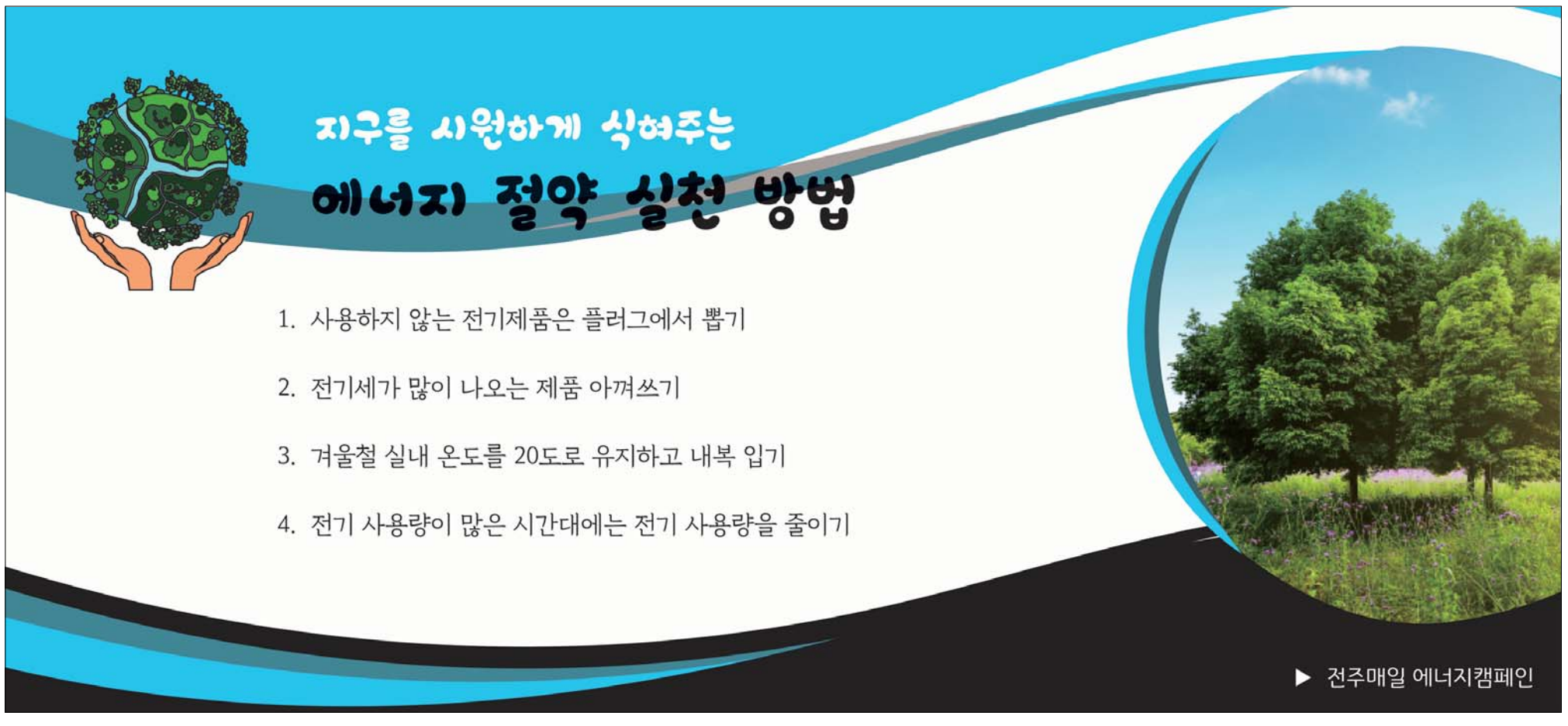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20일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제237회 임시회기와 의원발의 4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1건 등 3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일 의원이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회 포상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군산=한경봉 기자